

광주시의회, 11년만에 2野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권교체 한목소리 속 민주 "연립정부" 국민의당 "패권 청산" 15일까지 10일간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42건 처리키로

광주시의회가 11년 만에 야(野) 2당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을 가졌다. 6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영남 의원과 국민의당 대표의원인 김민중 의원이 각각 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06년 1월 민주당 강박원 의원, 열린우리당 김용억 의원 이후 11년 만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04년 교섭단체 연설이 실시된 바 있고,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번에 대표의원 연설이 이뤄지게 됐다.

양당 대표들은 정권교체와 협치, 광주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양당 대표 모두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연대와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당은 '수구 패권주의 청산'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 뿌리가 같은 양 당이 힘을 합치는데 광주 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변화

와 혁신은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에서 시작돼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는 국민의당만이 수구정치와 패권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양당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였다. 김영남 대표는 "어느 때보다 시정감시와 견제를 위한 협치가 중요해

졌다"고 밝혔고, 김민중 대표는 "일당 독점 때와 달리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광주의 미래먹거리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 산업생태계 개혁, 시민안전 위협 요소 전면 실태조사, 교육환경 시설 재점검 등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 대표도 4차 산업혁명 준비와 청년 정책 협력시스템 구축, 문화중심도시 전면 재검토, 시민안

전 최우선, 협치를 통한 자치구간 경제조정 등을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3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 청취 1건 등 모두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 민중연합당 1명으로 구성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영남 의원(왼쪽)과 국민의당 김민중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김영남 의원(왼쪽)과 국민의당 김민중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들 벌써 양지만 찾나

대선주자에 줄서기 ... '5·18 규명' 등 현안 논쟁 대응 비난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을 향한 광주·전남 지역정치인들의 줄서기가 바빠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역 현안 쟁점이 가려져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발견 이후 5·18 진실규명이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광주시의원들은 최근에야 뒤늦게 전일빌딩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논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4·13 총선 이후 지방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12년 만에 양당체제로 개편된 이후 야권 유력 대선 후보자를 둘러싼 지지자들의 평가가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일 본회의 직후 이은방 의장을 포함해 시의원 18명이 전일빌딩을 방문한다.

의원들은 총탄 흔적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보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현장 방문은 지역 최대 이슈에 대한 논쟁 대응이라는 급지 않은 시선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탄흔 감식 결과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고, 광주시가 진실규명 지원단을 꾸리고 대선 주자들까지 다음 정부에서의 진실규명을 약속하고 나섰는데도 시의회는 공식 성명서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임시회가 열리고 나서야 뒤늦게 시의회가 현장 방문계획을 잡았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얼굴 도장'을 찍으며 물러다니던 모습과는 판판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선에 따라 지방의원들

은 이미 특정 예비주자 진영에 합류해 세력을 결집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대선 예비주자를 둘러싼 지지 의원 사이에 평가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결의안 등 40건이 넘는 안건에서도 '5·18 진실규명'에 대한 조례나 특위구성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5·18에 대한 축소·왜곡으로 즉각적인 폐기 요구가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의원들이 전일빌딩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 일정을 잡기 힘들어 시의회 차원에서 방문은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해 전남 토지 면적 여의도 2배 5.9㎢ 늘어

지난해 전남 토지 면적이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여의도 면적(2.9㎢)의 2배 가까이 늘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만2천319㎢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전남 평균 공시지가(8621원/㎡)를 적용하면 509억원 상당이다.

해남 마산면 뜬섬 2.3㎢가 신규 등록했으며 울촌 제1 산단 매립 준공과 토지개발 사업으로 3.4㎢, 나주시·담양군 등 등록사항 정정으로 0.2㎢ 늘었다. 전남 토지는 용도별로 임야가 6991㎢(56.7%)로 가장 넓었으며 농지 3206㎢(26%), 도로 436㎢(3.6%), 대지 296㎢(2.4%), 기타 1390㎢(11.3%)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해남군, 순천시, 고흥군 순으로 넓었으며, 필지 수로는 해남군, 고흥군, 나주시 순이었다.

전남도 토지 관련 통계는 도 누리집(www.jeonman.go.kr) 토지관리과에서 공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DJ센터, 군산 새만금센터 위탁경영

올해부터 3년간 맡아 연간 16억 사업비 확보 코엑스 등과 경쟁서 이겨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신환섭)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지스코)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코엑스(COEX) 등과의 경쟁에서 일취연성 과 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지스코) 위탁사업자 선정 사업에 응모해 코엑스, 유명호텔 등 2개 기관과 경합을 벌인 끝에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17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GSCO를 위탁 경영하게 된다.

GSCO는 지난 3년 간 코엑스가 운영을 맡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GSCO를 위탁 운영하게 되며, 군산시로부터 연간 16억여원의 위탁사

업을 확보했다.

군산 새만금로에 위치한 GSCO는 2010년 10월 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연면적 7492㎡, 지상 3층에 2000석 규모의 컨벤션홀을 비롯 10개의 회의실, 1만 8000㎡ 규모의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 등을 갖춰 2014년 7월 개관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앞으로 전시장·컨벤션 시설과 25명의 인력을 활용해 각종 전시회, 박람회, 회의, 이벤트 등을 발굴·개최해 GSCO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GSCO 위탁 경영권을 따냈으로써 지난 12년 동안 쌓아 온 컨벤션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환섭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센터가 지니고 있는 12년 간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3년 동안 광주와 군산을 조화롭게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해 호남권 마이스 산업발전을 견인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농식품 수출 희망기업 16일까지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전남도는 농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을 위해 '2017년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농가와 농산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전남도가 소요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농가 또는 농산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수출 중소기업이다. 해외에서 전남산 농산식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도 가

능하다. 다만 해외 유통업체는 반드시 전남에 있는 수출 농가 또는 수출업체가 생산한 농산 식품을 수입해 판촉행사를 해야 한다. 참가 업체는 행사 품목수, 수출 규모, 행사 기간, 행사 매장 수, 현지 유통업체 규모, 자부담 비율, 현지 시장 개척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행사 매장 임차비, 장차비, 판촉 요원 고용비, 홍보비 등 판촉에 필요한 총경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20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대서 내일 한·일 다도해 섬 생활·민속 학술대회

한국과 일본 다도해 섬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두 나라 섬 사람들의 생활과 민속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오는 8일 목포대에서 열린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용)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섬민속 연구자들이 참석해 섬사람들의 생활과 전통지식, 민속예능, 어문문화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1부에서는 '흑산군도 흥어와 조도군도 탐부기-호남지역 식문화의 생태적 접근(고광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원구위원)', 1936년 아타미지움의 조선 다

도해 조사, 그 기록과 자료(이경엽 목포대 국문과 교수)', 물때(조석현상)에 적응해 온 서남해 사람들의 삶과 어로활동(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등이 소개된다.

2부에서는 '갈립(풍물을 쳐주고 돈과 곡식을 얻는 일)에는 한 일비교연구(가미노 치에, 일본 도쿄예술대학 박사)', 섬 생활의 성립조건으로서 사람의 이동(마츠다 무츠히코,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에티오피아와 일본의 갈립예능의 비교(가와세 이치시, 일본 역사민속학박물관 교수)' 등을 발표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